

# 청소년문화의집 쓰레기 처리 ‘전전공공’

### 광주시, 전량 반출시 수십억원 필요...반입도 법적 불가 그냥 덮고 공원 조성하자니 불법 쓰레기 묵인한 꼴 ‘부담’ “악취·가스·침출수 등 우려”...오늘 주민대책위 구성

광주시가 북구 일곡지구에 추진 중인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가 대규모 불법 쓰레기증 발견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해당 부지에 매립된 수만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행정 당국이 전전공공하고 있다.

전량 수거해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할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법적으로도 위생매립장 반입이 불가능하고, 그냥 덮거나 불법을 묵인한 꼴이 되고, 매립 후 건물물 지을 경우 연약 지반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그야말로 전전공공이다.

과)으로 환산하면 수거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침출수와 가스안전을 위한 설비 공사비도 별도 책정해야 한다.

반입 문제도 골치거리다. 시 자체 검토 결과, 문제가 된 폐기물은 사업장 불법 폐기물이라는 주민지원 협의체 동의나 환경부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반입되는 가정 또는 사업장 생활쓰레기와 달라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출 과정에서 악취, 매립가스 누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과 주변 건물 안전성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그렇다고 그냥 덮는 것도 문제다. 수만의 불법 매립 쓰레기를 그대로 덮을 경우, 불법을 묵인하는 꼴이 되고, 비위생 매립 쓰레기를 영구적으로 안고 지내야 하는 심리적, 환경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플라스틱의 경우 완전히 썩어 분리되는 데만 500년이 걸린다는 연구보고도 있다”며 “단순 매립된 쓰레기는 수 십년이 지나더라도 유해성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일곡 제8근린공원 내 매립 쓰레기는 광주시가 관리중인 35개 비위생매립지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과내자니 예산 문제와 법적 제약이 뒤따르고, 덮자니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법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출구없는 논란’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매립된 쓰레기층 위에 철저히 임지분석도 없이 청소년 문화시설을 지으려한 광주시의 엉터리 행정이 결국엔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고민’과 행정 신뢰도 추락을 자초한 셈이다.

한편 빛고를 아이클생협과 일곡마을배움청, 한세봉무래 등 일곡지구 주민자생단체 10여 곳이 26일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불법 쓰레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여수산단NCC 공장 화재, 작업자 1명 부상

26일 오후 1시 44분께 여주시 여수국가산단내 A 사 NC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1명이 부상했다.

A 사에 따르면 이날 공장내 OCU 공정에서 타워 열변안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화재 신고후 공장 자체 소방차가 출동해 10여분 만에 진화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보온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1도 화상을 입어 공장내 건강관리실에서 치료 중이다.

공장 관계자는 “에틸렌으로 프로필렌을 만드는 OCU공정에서 발생한 화재를 자체 진화했으나 옆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 지르겠다” 경찰에 허위 신고 4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6분부터 오전 9시56분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불을 지르겠다”고 117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밤행 3시간 전 지역 내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휴대전화2대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 “불이 났다”며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했다. 실제 낙엽을 모아 불을 붙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 낙지 통제로 먹은 70대 병원 치료 중 숨져

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힌 70대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에 지역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70)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에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산낙지를 먹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 응급 처치 뒤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낙지를 통제로 먹던 중 기도가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들의 경우 낙지 등을 먹을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폐교환기 훼손해 1000만원 훔친 10대 구속

전남과 광주 곳곳을 다니며 ‘인형뽑기 지폐교환기’를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경찰서는 26일 인형뽑기 지폐교환기를 훼손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 절도)로 A(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59분께 완도군 완도읍 B(36)씨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 잠금장치를 뜯어낸 뒤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 등 광주와 전남, 경남 양산 등 전국을 다니며 전후 2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형뽑기방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고 심야시간에는 주인이 없는 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 ‘방이 왜 없어’ 호텔에서 행패부린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호텔에서 직원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업무방해)로 A(5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호텔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원 B(20)씨의 팔과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며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다.

민취한 A씨는 투숙하기 위해 호텔을 찾아와 ‘모든 객실의 예약이 끝났다. 들어가달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NO!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앞에서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 해병전우회 남구지회,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연말 음주운전 예방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폭우 침수’ 광주 백운광장 하수관 정비 지연...같은 피해 우려

광주 남구 주월동과 백운동지역이 지난 8월 폭우로 연속 침수 피해를 입어 하수도정비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됐지만 공기가 늦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습폭우로 주택과 상가, 차량 등 침수를 피해를 입은 백운동과 주월동 지역 하수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 ‘백운광장 주변 하수도 개선사업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 6개월과 실제 공사기간 6개월까지 더하면 공사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 또는 12월로 예정돼 폭우가 가장 많이 내리는 여름에도 똑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백운광장 하수도 재 정비 사업은 이 지역이 지난 8월27일과 31일 내

린 폭우로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지난 9월께 시급하게 추진됐다.

당시 나흘간격으로 내린 시간당 60mm의 폭우에 백운광장과 주월동 일부 지역의 상가 104동, 주택 20가 구, 차량 70여대, 아파트 지하시설, 농경지 7.5ha가 물에 잠겼다.

속수부족 침수 피해는 하수관 확장 공사를 제 때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역의 하수관의 빗물 처리 용량은 시간당 50mm로 70mm로 확장하는 공사를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2017년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도시철도2호선 예정구간과 500m가 겹치면서 2016년 12월 중단됐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논란까지 더해져 착공이 2년째 지연되던 중 결국 피해를 입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9월 시·구 상생회의를 갖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내년 장마철이 오기 전 마무리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40억7000만원을 투입해 총 공사구간 505m에 가로 2.5m·세로 3m 규모의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계용역부터 늦어지면서 공사완료시기도 늦춰져 주월동과 백운동 주민들의 불안감은 떨치지 않고 있다.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